

言論이 본 정유산업



金基萬
(東亞日報 경제부기자)

작년 4월에 있었던 春季石油정책세미나 때의 일로 기억된다. 정유사에서 참석하신 한분이 지난 85년 한햇동안의 石油관련기사를분석, 발표한 바 있다.

내용은 中央일간지의 1년치 관련기사 5백29건중 1백42건이 국제원유가에 관련한 것이었고 95건이 정유, 국내유가 등에 관한 것이었다는 것 등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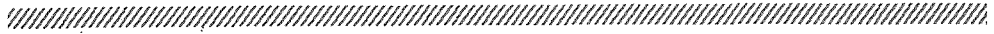
특히 정유사에 관한 비교적 비중있는 32건의 기사중에서 긍정적인 것이 18건, 부정적인 것이 14건이라는 정밀한 계량적 분석이 나왔었다.

아울러 그같이 부정적인 기사가 자주 게재되는데 대해서는 억울한 심정도 없지 않지만, 『정유업체가 마스크관리를 잘 하지 못하는데도 원인이 있을 것』이라는 주석을 달아준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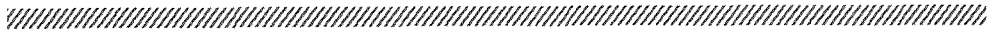
본인은 당시 그 얘기를 듣다 깜짝 놀라 귀를 의심했었다. 지난번 어린이대공원의 호랑이사건을 얘기하면서 『순치될대로 순치돼 여섯차례를 물어도 사람 하나 못죽이는 종이호랑이야말로 이 시대 언론의 자화상』이라고 자탄하고 있는게 부끄러운 우리 언론의 실상이고, 그 때문에 자격지심과 피해의식이 있는 것도 사실이겠지만, 「마스크관리」라는 표현은 참으로 어이없는 것이었다.

文公部등 정부의 언론담당자들이 즐겨 쓰는 「홍보조정」이라는 단어가 「관리」라는 단어와 오버랩돼 화가 나기도 하고, 또 너무 순진무구한 표현이라는 측면에서는 실소를 금할 수 없기도 했다.

언론이 정유사를 보는 시각은 분명히 시팔뜨기에 가깝다. 그러나 이같은 시각을 갖도록 한것은 정유사들 자신



「精油産業은 필시 정부로부터 엄청난 특혜를 받았을 것이다」, 「정유 업체들은 매년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있을 것이며, 그중 상당액은 메이저들에 나누어질 것이다」, 「의혹이 많은 만큼 정치자금도 꽤 내고 있을 것이다」라는 등등의 精油業體들로서는 억장이 무너질 시각들이 특히 정치의 혐오스런 몰골과 사회불신의 팽배에 따라 더욱 깊어지고 있다는 현실인식 위에서 매듭을 풀어야 할 것이다.



이며, 정유산업의 20여년에 걸친 이력서를 들춰볼 때, 그 같은 시각이 형성된게 무리가 아니라는 것도 사실이라고 여겨진다.

더구나 언론 아닌 일반국민의 시각이야 사팔뜨기 정도가 아니다. 차라리 「청맹과니」라고 하겠다. 보기에는 눈이 멀쩡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보지 못하는 당달봉사들인 것이다. 국민들이 정유사를 볼때 비치는 색깔은 「검은색」 하나 뿐이다. 온통 까마귀들만 모여사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다.

상황이 이러할진대 억울하고 괴롭더라도 국민들의 이 같은 오해와 편견을 불식시키기 위한 겸허한 반성 및 여기에서 출발하는 꾸준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지, 언론의 시각만 교정해주면 단사가 형통하리라고는 보지 않는다.

더구나 매스컴관리를 좀 더 잘 한다고 해서—그 관리의 개선방안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도 궁금하지만—상황이 쉽사리 나아질 것으로 여긴다면 지나치게 안일한 생각이 아닐 수 없다.

이달초 12월말결산 上場법인들의 86년 영업실적이 발표됐다. 매출액 기준으로는 三星, 大宇, 現代에 이어 油公이 4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순이익의 크기로는 現代自動車, 大宇에 이어 油公이 간발의 차로 3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슷한 시기에 정부의 유전스기간 단축 및 수입보증금 예치제 실시방침에 따라 정유업체는 올해에만 8천여억원의 운영자금 부담을 새로 안게돼 견디기 힘든 자금압박을 받게될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바로 경제부소속 베타라급 기자들인 몇몇 선배들이 본

인에게 매우 불만스런 어투로 물어왔다. 『精油社 친구들은 왜 그 모양이야? 그만큼 이익을 내고있고 땅짚고 혀업치는 장사를 하면서도 맨날 우는 소리만 하고말이야……』

명색이 動資部를 출입하는 마당에 그냥 있을수 없어서 『油公은 석유화학 쪽의 영업이익이 좋고 비교적 투자회수가 어느 정도 되셈이며……』云云하는 설명을 해봤지만, 짧은 감을 씹는 기본이야 어쩔수 없었다.

民正黨출입기자들은 술자리에서 가끔 재미있는 고백을 한다. 民正黨숨만 떠났다 하면 이곳 저곳 어디를 가더라도 집권당을 욕하는 소리가 하도 많기 때문에 때로는 부지불식간에 집권당의 모습을 일부 변호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놀라기도 하고 自嘲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精油社 얘기가 나오면 뒷박만큼 아는 지식을 갖고도 말(斗)글, 가마니 글이라든 아는 것처럼 설명하고 변호해보게 되는 우리 기자들의 심경은 아마도 精油社와의 돈독한 관계때문이라기 보다는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고 그로기 상태에 몰려있는 「보기 딱한 모습」에 대한 심정적 연민 때문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자고로 功을 인정하는데는 인색하고 過를 문책하는데는 지나칠만큼 후한게 우리의 그릇된 정서이지만, 문제해결의 출발은 그같은 풍토조차 철저히 깨닫는데서부터 시작돼야 한다.

「精油産業은 필시 정부로부터 엄청난 특혜를 받았을 것이다」, 「정유업체들은 매년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있을 것이며, 그중 상당액은 메이저들에 나누어질 것이다」, 「의혹이 많은만큼 정치자금도 꽤 내고있을 것이다」라는 등등의 정유업체들로서는 억장이 무너질 시각들이 특히 정

치의 혐오스런 물골과 사회불신의 팽배에 따라 더욱 깊어지고 있다는 현실인식 위에서 매듭을 풀어야 한다는 얘기다.

옛날 그리스 신화를 보면, 알렉산더 대왕은 복잡다단하게 얽혀있는 고르디아스의 매듭을 보자 단칼에 내리쳐 매듭을 잘라버린 바 있다. 복잡한 문제를 快刀亂麻처럼 푸는 경우를 이래서 「고르디아스의 매듭」이라고 칭한다.

정유업계의 고민은 아마도 알렉산더大王처럼 단칼에 매듭을 잘라버릴 방법이 없다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어찌할 것인가. 시간과 땀이 많이 필요할 것이지만, 실타래를 갖다 놓고 한을 한을 풀아가는 도리밖에 없을 것이며 이러한 노력이 차분히 이루어질때 만일 言論과 國民의 시각이 일그러진 것이라면 그것도 소리없이 교정되리라 믿는다.

정유업계의 생살여탈권을 쥐고있는 動資部등 정부정책 당국도 몇몇하지 못한 점에서는 별 차이가 없다고 본다.

석유사업기금 하나만을 놓고 볼 때도 政府의 행정력남용은 지나치다고 하지않을 수 없다. 계획대로라면 올해말까지의 조세액이 2조원을 넘게 되는 이 기금은 우리나라 만큼 행정력이 별다른 저항없이 침투되는 나라가 적어도 자유진영에서는 또 있을까라는 탄복을 자아내게 한다. 최근 日本열도를 들끓게 하고 있는 附價稅가 우리의 경우 10년 전인 77년 7월부터 施行된 것을 보면 더더욱 그렇다. 行政力에서 우리와 비슷하거나, 우리를 뒤따라 오는 곳이라면 臺灣 정도가 고작일 것이다.

작년중 國際原油價 下落分の 38.4%만을 國內油價인하에 쓰고 나머지는 기금과 관세로 빨아들인 우리 정부는 확실히 강심장이다.

요즘 大學生들의 流行語중 「돌대가리보다 강한 것은 머리카락이고, 강철보다 더 강한게 수염」이라는게 있다.

돌대가리도 뚫고 나오는데 머리카락이고 鐵面皮를 뚫고 나오는데 수염이라는 것이다.

부실기업을 정리하면서 그 내용을 일체 공개치 않고 海運業體에 대한 2조원의 지원을 하면서 그 누구도 責任지는 사람하나 없이 國民들에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조차 없는 政府當局者들에게 나는 이 얘기를 들려주며 무서운 풍자, 寸鐵殺人的 경고로 삼으라고 말해주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그보다는 덜하다고 하지만 최근 정부의 유전스기간단축이나 수입보증금예치제 등에 따른 정유업계의 하소연

을 들으면서도 「무책이 상책」이라고 방관하다시피 하는 동자부를 보면 오십보백보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

國民들의 輿論을 지나치게 의식, 정유업계의 얘기라면 혼연하게 넘기는게 제일이라는듯한 태도가 동자부의 기본입장이라면 지나칠까?

몇해전 C모장관은 새해 업무보고때 石油價格의 自律化를 과감히 검토하겠다는 폭탄선언을 했다가 일언지하에 풍비박산된 바 있다.

價格自律化問題는 작년 이 세미나에서도 심각하게 논의됐다. 정부가 價格을 묶어두는 한 不信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論理였다. 동자부의 입장은 명확했다. 「논리상으로 또 궁극적으로 분명 옳은 얘기이지만 현실적으로 시기상조이다. 당분간 政府가 價格調整기능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본인은 그같은 政策轉換이 가능하던 않던간에 그런 발상을 해보고 과감히 業務報告에 넣었던 사람의 용기를, 소신을 높이 사야 한다고 믿는다.

통제가격에 길들여진 사람들은 사고방식조차 철저히 통제사리에 알맞게 굳어지게 된다는 것을 여러차례 깨달은바 있다.

1조원규모의 석유사업기금 운용계획을 마련하느라 며칠씩 여관작업을 하고 아침에 나서다보니 막상 누구 주머니에도 여관비가 없더라는 동자부 실무자들의 씩씩한 고백은 허탈속의 아름다움이라도 있다.

손바닥 하나로는 박수가 될 수 없다.

업계와 정책당국이 꼭 피를 나눈 사이처럼 同伴할수는 없겠지만, 언제까지나 서로를 탓하고 불신할 수만은 없다.

때로는 「악어와 악어새」의 관계도 돼야할 것이며, 國民經濟 전체를 위해, 또 길게 볼때 옳은 政策方向이라면 누구 말대로 돌팔매를 맞더라도 총대를 매겠다는 적극적 자세가 政策當局에도 있어야 한다.

어렵고 귀찮고 말썽 많다고 「대과없이 지나겠다」는 소극적 자세로 일관한다면 정도가 아닐 것이다.

업계가 겸허하고 진솔한 노력을 시작하고, 당국이 여론을 逆泳해서라도 옳은 政策을 추구하겠다는 자세를 가질 때, 여러분이 의구해 마지않는 언론이라고 「제 갈 길」을 四考五慮하지 않을리 없다. ☐